사 설

계율모임 '비니법석' 역할

초기불교 이래 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계율의 수지였다. 따라서 불법승 3보와 함께 파괴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불괴정(四不壞淨)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포교공간의 확대는 계율을 수지하는데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현재 한국에서 모본으로 삼고 있는 율장은 〈4분율〉이다. 중국 당나라시대에 도선스님께서 남산율종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양 3국은 〈4분율〉에 의거하여 의식과 행장을 꾸리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250계를 전통이란 이름으로 수지토록 하는 것은 조계종단의 이율배반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왔다. 율장은 있으되 지켜지지 않는 사문화된 율장이었다. 종단의 분규가 발생해도 율장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세속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온 것이 종단의 현실이었다.

때맞추어 계율에 관심 있는 스님들이 9일부터 13일까지 해인사 홍제암에 모여 '비니법석'이라는 계율학회 비슷한 모임을 발족했다. 계율이 지니고 있는 요익중생과 화합승단의 대승정신을 현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비니법석의 할 일은 매우 많다. 단순하게 재가신도들을 중심으로 5계 수지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되리라 본다.

교단사 차원에서 계율의 변천과정과 계율제정의 의의를 연구 검토하여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동시에 전통이라 하지만 지킬 수 없는 계율을 출가할 때 받게 하는 현재의 종단 수계의식에 대한 문제와 대승불교를 지향하면서도 부파교단에서 성립된 〈사분율〉을 모본으로 삼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종단 분규를 율장에 의지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연구해야 할 일 중의 하나다.

필요하다면 전문학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여 실질을 추구하는 학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니법석의 전도가 양양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종교NGO'에 거는 기대

'지금 한국의 종교는 개혁대상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 것이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고 부패에서 멀리 있어야 할 종교계에 세속 못지않은 도덕적 해이와 부패가 도사리고 있다면 당연히 종교계도 개혁되어야 마땅하다.

지난 5일 참여불교 재가연대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기독시민 사회연대 등 범 종교적 재가 신도단체들이 '개혁을 위한 종교 NGO네트워크'를 발족, 종교재정 투명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그런 사회적 요구를 표현한 것일 터이다.

종교적 신앙심의 깊이는 인간의 정신을 살찌워 주며, 청렴한 교단과 청빈한 정신의 성직(聖職)으로 하여 그 신앙심은 깊어지게 마련이다.

오늘의 종교계가 지탄받고 있는 이유는 성직, 출가자가 지켜야 할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종교NGO 네트워크' 발족 기념 심포지엄에서도 '종교 개혁 중심에는 돈 문제가 놓여있다'는 아픈 지적이 나왔다. '종교NGO네트워크'가 운동 목표를 '종교재정 투명화'로 잡은 이유일 것이다.

종교개혁을 위한 목소리가 비록 재가이기는 하나 각 종교의 교단 내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안도감을 준다. 그렇다해도 개혁의 발의나 주체가 재가 아닌 성직 안에서 나와야 더욱 바람직하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불교교단의 경우 교단의 도덕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승단의 청규제정 또는 결사(結社)등의 방법으로 이를 극복해 왔다. 고려 때의 정혜 결사, 현대에 들어 성철스님을 중심한 봉암사 결사 등이 출가자들의 '출가 본분'을 찾도록 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 했음을 우리는 안다.

'종교NGO네트워크'는 앞으로 종교별 재정운영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재정공개 제도화를 촉구하면서 '깨끗한 종교' 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하고, 상담 및 고발창구도 운영할 것이라 한다. 종교계 개혁과 정화를 위한 첫 발걸음에 기대를 걸면서, 이 운동이 삼보 가운데 하나인 승단에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불가 승속의 의식에 큰 영향 미쳐주기를 바란다.

교계언론 5개社 '포럼' 창설

첫 행사 '불교 사회사상 토론광장' 19일 프레스 센터

포럼준비위원에 학계·법조계 인사 등 34명 위촉

테러와 전쟁으로 얼룩진 21세기 지구촌에 평화라는 말은 화두로만 남을 것인가?

21세기 지구촌 당면과제인 평화공존의 근본정신을 모색하는 대형 포럼이 열린다. 5개 불교계 언론사(불교신문 법보신문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가 주관하고 포럼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불교 사회사상 토론광장'이 19일 오후 1시30분부터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21세기 지구촌 평화공존의 화두 – 둘 아님(不二)의 사회 철학적 의미'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대립과 분열의 세계기류 속에서 변화와 반전을 거듭하는 세계질서를 분석하고 연기적 관계로 평화 실현을 위한 근본 진리를 탐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불교계 5개 언론사들이 처음으로 손을 잡고 함께 준비한 행사란 점도 주목된다.

미국테러 등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정세에서 중도·불이의 부처님 가르침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한 5개 언론사 대표들은 불교학자를 비롯해 신행단체, 언론계, 법조계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저명인사 34명을 준비위원으로 위촉하고 연사와 토론자를 선정했다.

3부에 걸쳐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우선 김재영 교수(동방불교대학)의 '원전(原典)의 중도·불이사상으로 본 문명 공존의 원리'를 주제로 한 강연으로부터 시작된다. 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부처님이 정각한 직후의 최초 설법에서부터 비롯된 '중도·불이의 사상적 본질'과 '연기법에 따른 평화공존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국내외적인 분쟁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2부 토론광장에서는 '둘 아닌 지구촌 사회에 있어서 개체와 전체란 무엇인가-화쟁과 공존의 기초'를 주제로 한 심재룡 교수(서울대 철학과)의 발표에 이어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과)의 사회로 자유 토론이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종원 회장(불교언론인회)과 정병조(동국대 불교학과)·허우성 교수(경희대 철학과)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또 3부에서는 '둘 아닌 세계에서의 직업과 노동의 윤리'를 주제로 한 박세일 교수(서울대 국제 지역원)의 발표에 이어 권기종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박준영(서울방송 전무), 배금자(변호사)씨 등이 토론을 벌인다. 이날 포럼내용은 12월 2일과 9일 불교방송의 '철학과 현실'(저녁 7시 10분~9시) 시간에 방송된다.

포럼의 진행을 맡은 불교방송 박정원 기획위원은 "국내외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시기에 불교의 불이 사상을 되새겨 사회적으로 충돌을 피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jikm@buddhapia.com

템플 스테이 35억 지원

문광위 불교관련예산 104억 증액 편성

여야 합의에 의해 불교관련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 104억4천만원이 증액됐다.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최재승)는 7일 전통사찰 숙박시설 활용지원(템플스테이)사업에 35억원을 새로 반영하고,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 39억4천만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지원사업에 30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내년 불교관련 예산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00억원,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에는 70억원, 템플스테이사업 35억원, 문화재청 사찰문화재 조사비 5억원 등 총 21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문화관광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계수조정을 거쳐 11월 29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민주당 이미경의원은 "현재 불교관련예산은 연등회와 당의 제3정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대한 통과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도 "문광위 예산심의에서 증액된 불교관련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복지재단 기본재산 환수"

조계종 종정감사보고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5일 회의를 속개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종정감사보고에서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정념)는 "6월에 발생한 해인사 청동대불관련 해인사 선방대중의 실상사 항의방문시 기물파손행위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조속히 처리하여 차기종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화범)는 "복지재단 기본재산과 관련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환수명령을 받은바 즉시 기본재산을 입금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김원우 기자



◇6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대각국사 의천스님 열반 900주기 및 문화인물 기념특별전'에는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의천스님을 기렸다.

의천스님 900주기 특별전

국제학술회·예술제도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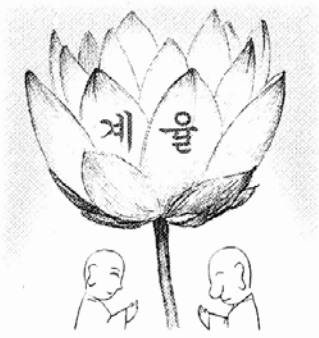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열반 900주기 및 11월 문화인물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전이 6일 서울 예술의 전당 제2전시실에서 개막돼 14일까지 열렸다.

천태종은 '11월의 문화인물' 대각국사 의천스님을 기리기 위한 제4회 국제학술대회를 16일 오전 10시, 제7회 천태예술제를 17일 오후 7시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의천 스님 900주기 열반대재를 19일 오전 11시 구인사에서 각각 봉행할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현대만평

김 영 민



마음속 깊이…

대둔사 '조선불교 연구원' 개원

자료수집등 조선불교 조명

조선시대 불교를 본격 조명하게 될 조선불교연구원이 설립됐다.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둔사는 3일 조선불교연구원(원장 보선·인터뷰 3면)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선불교연구원은 불교학자와 사학자, 고고미술학자 등 관련 전문가 7명을 연구위원(위원장 김상현 동국대 교수)으로 위촉해 조선시대 불교 관련 자료 수집에 착수하는 한편 첫 사업으로 〈조선시대 불교 연구 논저 목록집〉을 11월중 발간한다. 특히 스님들의 비문이나 글, 유학자들의 문집 등 다양한 자료에 실려 있는 불교 관련 내용들을 수집해 자료집으로 묶을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본사사령

강유신
김철우 命 취재1부 기자

여수령 命 취재2부 기자

이한길 命 뉴미디어부 기자

2001년 11월 6일자

고침 지난호(342호) 1면 '조계종 3급 승가고시' 기사의 제목과 기사 내용 중 합격자 331명을 '321'명으로, 2면 '사찰예산회계법 통과돼야' 제하의 사설 중 '…투명한 재정운용이야말로 기득권층의 전횡이나…'를 '…기득권층의 전횡을 막고…'로 바로잡습니다. 6면 '조계사 외국인안내 봉사팀' 기사의 소제목 '일어'는 '영어'로, 16면 '고승 다시보기'의 소제목 '송광서'는 '송광사'로 고칩니다.

『불교 사회사상 토론광장』

"21세기 지구촌 평화공존의 화두 – 둘 아님(不二)의 사회철학적 의미"

■일 시 : 2001년 11월 19일(月) 오후 1:45~8:30 ■장 소 : 프레스센터(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 및 프레스 클럽
■주 관 : 불교 토론광장 준비위원회 ■주 최 : 불교 5개 언론사 공동개최

초 청 말 씀

지구촌 정세는 지금 인류이성의 판단능력과 자율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분열과 쟁투의 양상이 우리들을 향하여 강력한 도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의 역사"처럼 겉으로 드러난 투쟁의 모습은 그 도(度)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와 생명의 본원적 잠재적 차원에서 '아(我)속의 비아(非我)와 비아(非我)속의 아(我)'를 살펴 볼 것을 촉구하고 있고, 따라서 아(我)도 아(我)가 아니요, 비아(非我)도 비아(非我)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我)와 비아(非我)가 별개(別個)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기적(緣起的) 관계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상호작용·반전하여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기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곧 불이(不二), 중도(中道)사상인바, 이에 따라 사고하고 실천한다면 화쟁(和諍)과 공존과 자유의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불교의 사회철학의 골자요 정신입니다.
오늘 이러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취지도 중도, 불이의 정신과 사상에서 출발하여 현금(現今)의 대세를 바라보고, 우리의 앞날을 전망하며, 오늘의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여기에 정중히 초청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불 교 신 문 사 장 영 담
법 보 신 문 발행인 성 타
현 대 불 교 사 장 김 광 삼
불교TV(btn) 사 장 이 수 덕
불교방송(BBS) 사 장 김 규 칠

일정 및 순서

11월 19일 월요일 오후 (pm)

1:45 '생명을 깨우는 소리'
2:00 개회의 인사말씀 : 영담스님(불교신문 사장)
1부~3부 진행 사회 : 박정원 (방송언론인)
제 1부 토론협찬 강연
2:05 "원전(原典)의 중도·불이사상으로 본 문명공존의 원리"
김재영 (불교역사학자, 동방불교대학 교수)
제 2부 토론광장 (1)
2:05 발제 : "둘 아닌 지구촌 사회에 있어서 개체와 전체란 무엇인가?- 화쟁과 공존의 기초"
심재룡 (서울대 철학 교수)
3:20 토론
사 회 : 성태용 (건국대 철학 교수)
토론자 : 공종원 (불교언론인회 회장)
정병조 (동국대 철학·불교학 교수)
허우성 (경희대 철학 교수)
4:10 10분간 휴식
제 3부 토론광장 (2)
4:20 발제 : "둘 아닌 세계에서의 직업과 노동의 윤리"
박세일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5:00 토론
사 회 : 성태용 (건국대 철학 교수)
토론자 : 권기종 (동국대 불교학 교수)
박준영 (sbs 전무), 배금자 (변호사)
5:40 질의응답, 토론 마무리
6:05 ☞같은 20층 「프레스 클럽」으로 이동
6:30 리셉션 인사말씀 : 성타스님 (법보신문 발행인)

주관 : 불교 토론광장 준비위원회 명단 (가나다 順)

강 신 철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	안 길 모	동아방송대 교수
공 종 원	불교언론인회 회장	양 형 진	고려대 교수
권 경 술	불교사회운동가	어 순 아	성신여대 교수
권 기 종	동국대 교수	유 석 춘	연세대 교수
김 광 삼	현대불교신문 사장	이 각 범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김 규 칠	불교방송BBS 사장	이 수 덕	불교텔레비전btn 사장
김 용 정	동국대 교수	이 용 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명 호 근	쌍용양회 사장	이 은 영	외국어대 법대학장
박 광 서	서강대 교수	이 한 구	성균관대 교수
박 세 일	서울대 교수	전 용 수	인하대교수
박 준 영	sbs 전무	전 준 모	KBS 감사
배 금 자	변호사	정 병 조	동국대 부총장
성 기 태	충주대 총장	정 종 섭	서울대 교수
성 태 용	건국대 교수	진 민 자	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
소 광 섭	서울대 교수	채 태 병	변호사
신 경 환	경기대 교수	허 우 성	경희대 교수
심 재 룡	서울대 교수	황 청 원	시인

문의 : 불교방송(BBS)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TEL. (02)705-5201~2 FAX. (02)705-5228
ses@bbsfm.co.kr